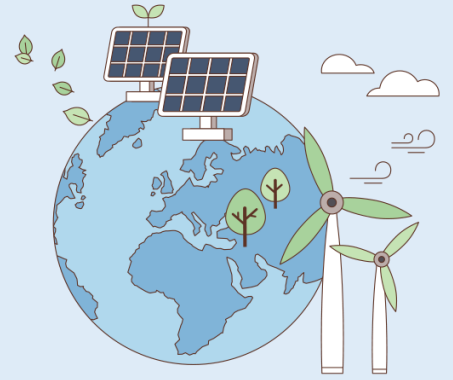


ESG

Weekly Focus



Economist/Asset Allocation 방인성_02)368-6145_isbang@eugenefn.com

E (Environment)

주간 국내 기사

- 탄소중립안 비판 쇄도...환경단체 '철화' 촉구, 산업계는 "목표 과도" *뉴스1*
- "배송용 비닐도 수거" 유통가, 친환경 'ESG경영' 박차 *뉴스프리임*
- 한화솔루션, 1조짜리 佛재생에너지기업 인수...친환경 선도 *이데일리*
- 사업장별 오염 배출 다이어트... '녹색공정' 전환 시작됐다 *서울신문*
- LG화학 中 배터리 소재 공장, 100% 재생에너지 쓴다 *이투데이*
- 첫 발 댄 '탄소 중립'...최소 1000조 이상 청구비용은 숙제 *중앙일보*
- '탄소배출 주역' 플라스틱의 변신...이산화탄소 최대 85% 줄인다 *머니투데이*
- 7% 목표였는데..SK이노 서산 배터리 생산전력 15% 아꼈다 *머니투데이*
- LG전자, '탄소중립 실현' 글로벌 캠페인 참여 *파이낸셜뉴스*

G (Governance)

주간 국내 기사

- 쌍용차 인수전 참여 선언한 강성부 대표...KCGI, 에디슨모터스 컨소 합류 *서울경제*
- 신약개발 드라이브 건 셀트리온...장남 서진석 지배력 강화 주목 *이코노미스트*
- 관치의 그늘...금융지주, 기형적 지배구조 *헤럴드경제*
- 이재용 가석방...재수감 207일만에 13일 출소 *매일경제*
- '5조+8조'...현대중공업-오일뱅크 상장 '본격화' *한국경제*
- 한화에너지, 모회사 에이치솔루션 흡수합병...지배구조 개선 *서울경제*
- 3년만의 롯데그룹 상장인데...공모 흥행 기대 못 미친 롯데렌탈 *조선비즈*
- SKT-카카오, 200억원 규모 ESG펀드 조성...최초 '빅테크 협력' *머니투데이*
- '몸값 2조' 현대LNG해운 매물로...현대상선, 눈물의 매각 7년만에 *서울경제*

S (Social)

주간 국내 기사

- 광주붕괴사고, 무리한 철거 불법하도급이 부른 '火災' *뉴스1*
- LG전자-엔솔 'GM 볼트 리콜' 총당금 3256억 설정 *한국경제*
- 한국타이어 노동자 다섯번째 백혈병 산재 인정 *한겨레*
- HMM의 딜레마... 실적 좋아질수록 임금협상 난항에 담합 걱정 *조선비즈*
- 파리바게뜨 '노조 와해' 의혹에 증거인멸...관리자 카톡방 '폭파' 정황 *경향신문*
- "먹어서 도와주자"...유통가 '착한 소비' 바람 *조선비즈*
- 정부 '안전관리 개선' 권고 사흘만에... 또 사망사고 낸 건설사 *동아일보*
- 삼성전자, 12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...창사 이래 처음 *연합뉴스*
- 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 표기...식약처, 오뚜기 등 업체 9곳 적발 *서울경제*

연기금 & 스튜어드십 코드

주간 국내 기사

- IPCC 기후변화 상황에 엄중한 경고... "인류에 보내는 코드 레드" *이데일리*
- 탄탄한 자산에 배당매력... 연기금-외국인, 리츠株 끌어담는다 *파이낸셜뉴스*
- 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...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*한겨레*
- ESG 바람 탄 회계 업계...몸집 불리기 본격화 *이데일리*
- ESG 이슈 눈높이 높아져...정보 공개 위해 주주 관여 적극 활용 *한경비즈니스*
- ESG 경영 제대로 실천하는 공기업에 인센티브 주겠다 *파이낸셜뉴스*
- 탄소국경세 도입 각국 의견 분분...정부 "기업 영향 최소화 노력할 것" *뉴스1*
- '녹색 원자재' 사불까...내달 국내 첫 탄소배출권 ETF *한국경제*
- 빌 게이츠,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1조7400억 지원 약속 *뉴스1*

주 : E, S, G,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.

ESG FOCUS UPDATES

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

- 중소기업연구원 21.08.09

E

-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하여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다 손실리스크의 직면이 우려됨
- 특히 국내외 대기업의 ESG 위험 관리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B2B 중소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ESG 관리 비용 증가 또는 ESG 성과에 따라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함
- Apple, MW, DHL의 경우 '공급망 행동규범'을 통해 협력사 ESG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사에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신규 거래 여부 판단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
-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20여개 중 54%가 글로벌 고객사 대상 수출·납품 과정에서 사회적 임 수준의 평가를 요구 받았고 그 중 19%는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바 있음
- 삼성, SK하이닉스, LG전자,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들도 RBA(Responsible Business Allinace)에 가입하여 협력사 ESG 위험 관리에 동참하고 있음
- 대기업으로부터 ESG를 근거로 불합리하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시 제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손실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요인임
- ESG 금융상품은 대부분 상장사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B2C가 아닌 B2B인 경우가 많아, ESG 성과 제고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사업에 중요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
-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ESG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
- 1) 구체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벤치마크 제시, 2)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, 3)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, 4) ESG 위험 발생 상황을 위한 긴급 지원 창구 마련 등 지속가능경영 정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

EU 'Fit for 55'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

- KDB 미래전략연구소 21.08.09

S

- 7월 14일 EU 집행위는 '30년 탄소배출량을 '90년 대비 55% 감축하겠다'는 EU의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'Fit for 55'를 발표함
- EU는 이미 '유럽그린딜'로 감축 목표 상향(50~55%)을 검토하고, '유럽기후법'으로 '30년 감축 목표를 '90년 대비 40%에서 55%로 상향한 바 있음. 'Fit for 55'는 이를 12개의 관련 법 제개정, 1개 신규 제도 제언으로 구체화한 것임
- 자동차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 강화, '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,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등의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이 포함됨
- '30년 EU내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승용차는 37.5%에서 55%, 승합차는 31%에서 50%로 강화하고 '35년에는 모두 100% 달성해야함(하이브리드 포함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)
- EU 신차판매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은 '20년 10%를 초과했으며 '21년 상반기 15%를 기록하는 등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
- 폭스바겐은 '30년까지 유럽시장내 전기차 판매 비율을 70%로 확대할 계획으로 매년 1개 이상의 BEV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. GM은 '25년까지 최소 30종의 신형 BEV를 출시하고 '35년까지 전차량 모델을 GEV로 전환할 계획임
- 국내 완성차업체도 유럽 등 핵심시장 중심의 전기차 전환 전략을 발표한 만큼 Fit for 55'로 완성차업체들의 순수전기차(BEV)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

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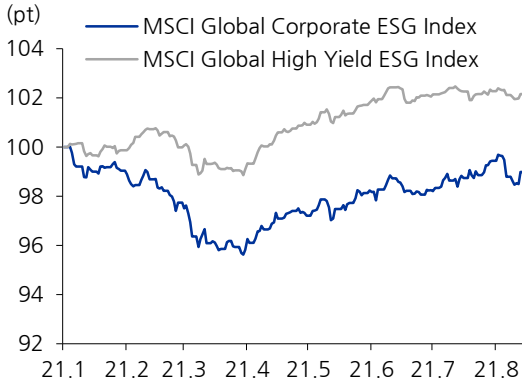
- 대한상공회의소 21.08.09

G

- 1)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일부,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자료, 언론 정보, 감독기구·지자체 자료 등을 활용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매년 10월에 발표하고 있음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에 따르면 한국 기업 ESG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함.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를 받은 908개 기업 중 71.7%(651개)가 'B' 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. 'B'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고, 비재무적 리스크로 주주 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는 기업'을 의미함
- 특히 환경부문에서 'B'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비율이 80.8%로 사회부문(59.4%), 지배구조부문(59.7%)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2)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시총 상위 800개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정보, 정부 공개 정보, 미디어 정보 등을 활용해서 기업의 ESG를 평가하여 매년 12월에 발표하고 있음
- 서스틴베스트는 C 등급 이상을 투자가능 기업, D와 E 등급은 투자배제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하반기 서스틴베스트의 평가를 받은 999개 기업 중 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4.4%를 차지했고, 투자배제 기업으로 분류되는 등급(D,E)을 받은 기업은 74개로 전체의 7.4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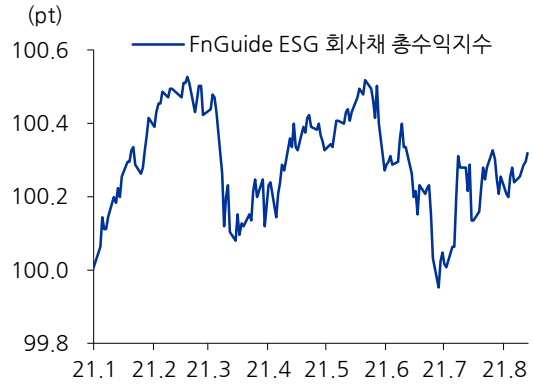
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

MSCI Global ESG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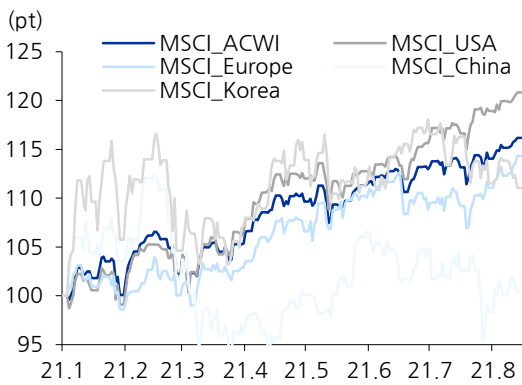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 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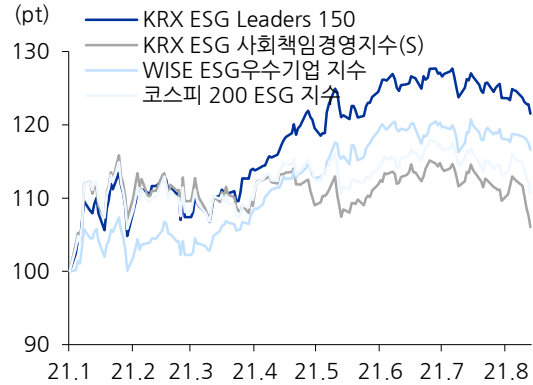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유진투자증권
 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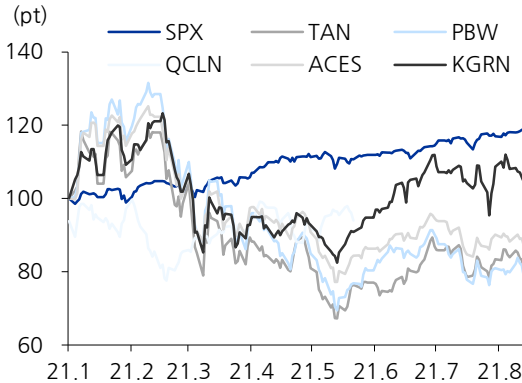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 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국내 ESG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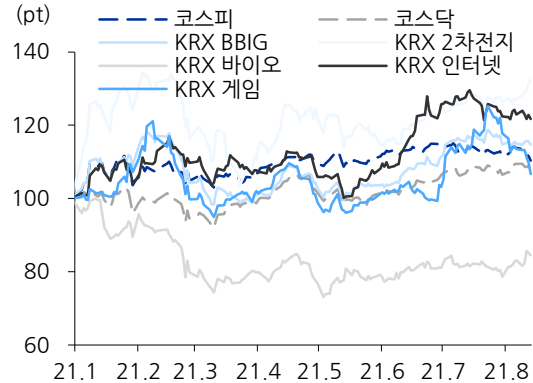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유진투자증권
 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대체 에너지 ETF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 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국내 K-뉴딜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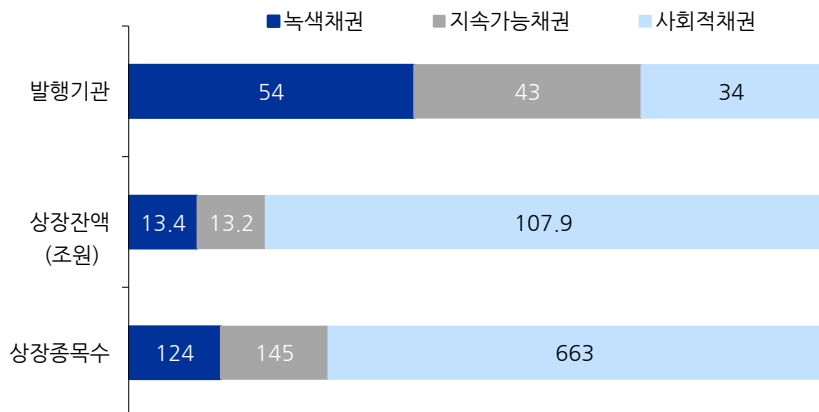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유진투자증권
 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

채권종류	종목명	상장일	표면이자율	상장잔액 (백만)
사회적채권	한국장학재단 21-5(사)	2021/08/13	1.56900	50,000
사회적채권	케이비국민카드 334-1(사)	2021/08/13	1.69700	80,000
사회적채권	케이비국민카드 334-2(사)	2021/08/13	1.82000	70,000
사회적채권	케이비국민카드 334-3(사)	2021/08/13	1.96400	5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1)(사)	2021/08/12	1.18500	162,2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2)(사)	2021/08/12	1.46300	19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3)(사)	2021/08/12	1.65300	23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4)(사)	2021/08/12	1.91900	55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5)(사)	2021/08/12	2.15700	24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6)(사)	2021/08/12	2.20900	19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7)(사)	2021/08/12	2.24900	11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8)(사)	2021/08/12	2.19100	4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7(1-9)(사)	2021/08/12	2.24900	10,000
사회적채권	롯데카드 443-1(사)	2021/08/11	1.98300	130,000
사회적채권	롯데카드 443-2(사)	2021/08/11	1.98500	30,000
사회적채권	롯데카드 443-3(사)	2021/08/11	2.14800	40,000
사회적채권	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50 회 5008-10(사)	2021/08/11	1.85600	200,000
사회적채권	이마트 22-3(사)	2021/08/11	2.34800	50,000
사회적채권	중소기업은행(신)2107 이 1.5A-08(사)	2021/08/10	1.22000	55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1(지)	2021/08/10	1.63100	8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2(지)	2021/08/10	1.63100	4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3(지)	2021/08/10	1.74000	6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4(지)	2021/08/10	1.74000	4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5(지)	2021/08/10	1.84200	20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6(지)	2021/08/10	1.84200	30,000
지속가능채권	현대카드 831-7(지)	2021/08/10	2.04400	50,000
지속가능채권	미래에셋캐피탈 51-1(지)	2021/08/09	1.76500	50,000
지속가능채권	미래에셋캐피탈 51-2(지)	2021/08/09	1.99600	30,000
지속가능채권	미래에셋캐피탈 51-3(지)	2021/08/09	2.16200	20,000

자료: SRbond, 유진투자증권

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



자료: SRbond, 유진투자증권

주: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2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8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1.06.30 기준)